

# 우리의 탈무드

이 성 계  
(모튼이교회 목사)

‘하브루타’라는 히브리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쉘마와 하브루타를 합성한 ‘쉐브루타’라는 말도 나타났다. 그런데 필자는 걱정이 앞선다. 유대인들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하브루타란 단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사용이 되다가 소멸이 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서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도 지금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가 말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회개와 전제된 공의로 기초된 사랑이거늘... 그리고 그게 믿음의 요소이거늘...

하브루타는 예시바같은 유대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하브루타는 토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하브루타의 공부 대상이 탈무드라는 점이다. 어째서 토라가 아니고 탈무드일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파라샤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모세5경인 토라를 1년에 한번 읽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토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탈무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곤한다. 국제유대인협회는 매일 탈무드 1장 읽기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여기서 탈무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두면... 탈무드는 유대인의 두 번째 경전이라 하는 ‘미쉬나’의 주석을 말한다. 미쉬나는 토라에 나타난 율법을 유대인들이 처한 이방의 곳곳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토라에 나타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쯔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유다왕국은 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비록 이방에 살더라도 토라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에레쯔 이스라엘로 돌아갈게 해주실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랍비들이<sup>1</sup> 중심이 되어 저들 나름의 율법 준수 방안을 고안해 냈는데 그거 미쉬나였던 것이다. 미쉬나가 집대성된 때가 주후 2세기쯤이다. 신약성경의 목록이 완성된 때와 일치한다.

미쉬나는 바벨론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돌아보니 미쉬나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또 랍비들이 중심이 되어 미쉬나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 당연히 미쉬나의 본문보다 주석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 주석을 ‘탈무드’라고 부른다. 그러나 오늘날 탈무드라고 하면 미쉬나의 원문을 포함한 것이다. 미쉬나의 본문은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였지만 주석은 히브리어였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유럽에 들어가서 변화를 맞았다. 스페인의 유대인들(스파르딤)은 스페인어와 히브리어가 섞인 ‘라디노’를 썼고, 독일의 유대인들(아쉬케나짐)은 독일어와 히브리어가 섞인 ‘이디쉬’를 썼다. 이런 이상한 히브리어를 우리는 통칭 ‘중세히브리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이 중세 히브리어는 탈무드의 언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탈무드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건 이 중세 히브리어를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세기의 랍비들, 특히 라쉬라는 사람은 그 많은 탈무드를 집대성하여 표준판 탈무드를 편찬

---

<sup>1</sup> 유대인들은 세 사람의 랍비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해<sup>2</sup> 냈다. 이게 19세기 중엽에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20세기 말에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 오늘날 탈무드! 하면 라쉬의 탈무드를 말하지만 탈무드가 라쉬에게서 멈출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째서 토라, 즉 성경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탈무드에 관심을 갖는가...하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신들의 독특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약성경이 있고, 이슬람교도들에게는 꾸란이 있는데, 저들에게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탈무드를 만들고 그것에 집착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탈무드 본문인 미쉬나는 신약성경보다 역사가 앞선다. 신약성경은 주후 6세기 로마교회의 그레고리 1세의 주도로 세상에 나왔고<sup>3</sup> 꾸란은 그보다 더 늦다. 따라서 이런 설명은 근거가 약하다.

필자는 유대인들이 토라보다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탈무드보다 토라를 더 중요하게 다루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무슨 말이나... 유대인들은 토라를 경이라 한다. 성경이라는 말이다. 경은 함부로 다룰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즉 신성4문자인 ‘요드 헤 바브 헤’를 ‘아도나이’ 또는 ‘하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내용도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 누가봐도 확실히 틀려있는 부분조차 우리의 영역 밖이라 하면서 여백에다 그저 조그맣게 의

---

<sup>2</sup> 유대인 랍비들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유대인이 사는 길은 성스러운 문서들을 보급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어왔다. 사실 이들은 성스러운 문서들을 암송을 통해 전달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록이 필요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이 양피지에 토라나 탈무드의 내용을 기록해서 만든 두루마리를 보급할수 밖에 없었다. 인쇄술이 나오자 그걸 사용하지 않을수 없었지만 인쇄된 문서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탈무드의 독일어 또는 영어 번역본이 늦게 나왔다.

<sup>3</sup>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은 주후 2세기 경에 정해졌다고 한다. 이태리 서지학자 무라토리 목록 참고.

문을 표시하는 정도다. 기독교 학자들처럼 성경본문을 야웨문서, 엘로힘 문서, 제사문서 등으로 잘게 쪼개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주류 학자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하지만 성경의 율법을 정리해 둔 미쉬나나 그것을 주석한 탈무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토론을 벌인다. 바로 이것이 ‘하브루타’이다. 유대인들은 곧잘 유대인의 인구만큼 신학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이들은 토론을 하고 이견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의 지혜라는 확신이 든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를 보면, 해방직후 소위 신신학의 수입으로 교단이 갈라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문서설을 지지하는 아빙돈 주석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온 정성을 다해 받들었던 성경이 사실은 갈래갈래 찢어진 자료들을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주워모아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책이라니... 지금도 소화가 되지 않는 문서설을 해방직후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소화할수 있었겠는가?

한국교회가 신학적이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신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그래서 감성적이고 현세기복적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누울 자리를 보지 않고, 지금도 검증되지 않는, 아니 검증될수 없는 현대신학을 특히 성서신학을 강요한 신학자들의 무책임한 지적우월감에 있다고 본다. 문서설... 그거 누가 옳다고 보증하겠는가? 예컨대, 신명기학파와 역대기학파의 차이점은 그들의 차이점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벌일 용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토라를 아예 경으로 못박아 수정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대신 미쉬나를 만들어 그것으로 신학적인 토론을 벌인 유대인들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한다. 미쉬나를 토론거리로 만들면 토라, 즉 경은 권위있는 판단 기준이 된다. 미쉬나로 인해 경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쉬나는 경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주석을 붙일수 있다. 그리고 그 주석에 또 다른 주석을 붙일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를 만든 힘이다.

라쉬의 탈무드가 나온 이후, 이젠 탈무드조차 제한된 느낌이 든다. 그러나 탈무드는 그 성격상 무한히 확장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탈무드를 쓸수 있다. 그리고 그 탈무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탈무드로 응수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탈무드란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하면 어떨까 한다. 이미 여러가지 히브리어 단어들도 우리의 세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토라가 그렇고 쉘마가 그렇고 하브루타가 그렇다. 여기에 탈무드 하나를 보탠다고 뭐가 이상해질것 같지는 않다.

가령, 장 깔뱅의 '기독교강요'나 칼 발트의 '교회교의학' 등을 우리의 탈무드감으로 볼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위대한 저술들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찬찬히 비평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좀 더 효과적인 성경공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는 요즘 칼 발트의 '로마서 주석'을 가지고 로마서를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주석도 아주 좋은 장로교 탈무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예시 자료: 칼 발트의 <로마서 주석: 3.21-31.>

롬 21절 상: 그러나 이제는(jetzt aber)... 하늘과 땅의 주님께 있는 우리의 분향... 그 곳을 향하여 심지어 율법으로부터도 방향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의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으나 이제 율법이 아닌 것으로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것으로도 표현이 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trotzdem)'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의란 결국 '용서(die Vergebung)'다. 그 용서는 심판자로서 베푸시는 것이다. 루터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의와 구원과 위로는 우리 밖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여질만 하며 거룩하고 지혜로운 반면, 우리 자신 안에는 불의와 미련함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게 천상의 지혜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여러가지 이유로 간과했던 바로 그 진리가 해방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게 필요한 것이 단 한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다. 우리는 우리가 옥쇄고 있는 진리를 풀어놓아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회개다.

진리의 해방으로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오래 전에 선포되었다. 심지어 그 심판의 모습까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목격했다. 율과 시편의 기자들도 그걸 목격했다.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름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복음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다. 오래된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신실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계시다. 이것은 신적인 끈기(das Beharren)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하나의 선(die Linie)이다. 바로 본래적인 기선(der rote Faden)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식의 내용이 된다.

그리스도로 인식되는 예수는 모든 인간적인 기다림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언한다. 이것은 기다리는 자가 인간이 아니고 자신의 신실하심(die Treue Gottes)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의 통고이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든 통고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만나진 것에 대한 지시들이요 예언들이는데서 확증된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이 때의 믿는 자란 회개하는 자이다. 여기서 회개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서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가난하게 된 자, 예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취하는 근본적인 방향설정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 그 자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은 모든 모험 중의 모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험은 우리에게 지시되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이 요구는 예수 안에서 피할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와 만난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근원을 가진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허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믿음을 요구한다. 따라서 믿음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쉽고 또 어렵다. 믿음은 똑같이 전대미문의 것(das Unerhoerte)이며 똑같은 모험(das Wagnis)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당혹이며 동일한 약속이다. 따라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도약이나 공허 속의 도약이며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똑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롬 3.22절 - 24절: 마틴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 “명심하라! 이것이 이 서신과 성경 전체의 주요부이고 중심부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의의 실재성(die Realitaet)은 그 의의 보편성 가운데서 입증된다. 오직 은혜에만 신뢰를 두는 용기를 바울은 예수에게서 얻는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적 차별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는 것을 본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선교(die Mission)는 차별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차별을 제거해버린다.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모든 것들 안에서, 즉 종교적 바탕, 윤리적 자의식, 박애 안에서, 사회적 와해의 짝은 항상 감추어져 있다. 긍정 속의 긍정은 결국 개별화된(differenziert) 그 어떤 것이고 그 개별화를 터 닦아준 그 어떤(differenzierend) 것이다. 즉 인간들 사이의 실재적인 사귀의 공동체(die Gemeinschaft)는 부정적인 것 안에서, 즉 그 인간에게 결여된 것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제들로서 인식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시성인데 이게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우리는 하나로 묶여질수 있다. 하나님의 명시성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 믿음의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순수성이 발견되고 신적인 공허함이 나타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점은 도무지 차이가 없다.

만약 구원의 문제에 있어 '믿음' 밖의 다른 어떤 것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선포의 말씀은 법정적(forensisch) 판결이며, 원인과 조건이 개입될수 없는 판결이며, 하나님 자신 안에서만 근거를 갖는 판결이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이고 우리와 세계 안에서의 신적인 현실적 의의 창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창조는 새로운 창조이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예고되었고 가까이 다가온 것이며 옛 세계의 연속이 아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의 은혜를 통하여 오직 홀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로 선다. 은혜는 오직 '그렇다'고 하는 긍정이고, 구원이고 위로이다. 그래서 외적 인간은 사라지고, 내적 인간이 날로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말씀(das Schoepferwort)을 근거로 하여 예수 안에서 예고된 성취의 날과 관련해 믿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 창조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이라는 한 조각의 세계에서 세계성을 보고 다가오는 구속을 본다. 바로 이들이 복된 자이다. 다만 믿어질수 있는 것만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믿어질수 있는 것만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다.

롬 3.25-26.: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 신실함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화해의 덮개, 즉 속죄소, 히브리어로 키포레트를 삼으셨다. 정금으로 된 판으로 날개를 가진 두 천사의 형상, 즉 케루빔으로 비호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가리키며 덮고 있다. 그 키포레트는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곳이기도 하다.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에 의해 화해를 위한 질적 의미가 부여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 화해의 목적으로 똑같이 파헤쳐 비워지기도 하고 충전되기도 한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의 숨어계심과 현재하심을 선포했었던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가 계시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감지될수 밖에 없다. 이게 가장 첨예화된 모순(die Paradoxie)으로 그렇게 되니 곧 그것은 다만 믿어질수 있을 뿐이다.

피를 통한 구속이 바로 그 의미다. 힐러는 “피는 구속자의 초상화에 있어 바탕 색깔이다”라고 했다. 눅 2.34-35의 말씀대로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바방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그의 삶 도처에 용서가 있었다.

롬 3.27-30. 오직 믿음으로 (Allein durch den Glauben): 무덤 저편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홀로 그 분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구속과 구원의 의가 나온다. 거듭거듭 하나님으로부터만 인간을 위한 의가 존재한다. 이 전제로부터 율법, 종교, 인간의 체험, 역사, 세계의 모든 현존(das Da-sein)과 상존(das So-sein), 그리고 소여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닐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릎을 꿇지 않으며 신적 의인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신으로 무엇이든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려 하는 인간들은 결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볼수 없다. 뭔가를 사랑하는 인간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고 또 거듭 죽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율법적 바리새인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 율법이 행위의 법으로 전락하는 한, 사랑함은 중단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의 실재성(die Realitaet)은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재 이상의 것이 되려고 하는 인간에게 믿음은 주어지지 않는다. 믿음은 자기 고유의 가치가 없이, 소위 자기 부정이라는 자기 가치까지 포함해서, 자기 고유의 능력 없이, 소위 자기 겸허라고 하는 자기 고유의 능력도 없이, 그리고 인간 앞에서도나 하나님 앞에서도나 그 무엇이 되려고 하지도 않는... 바로 거기서 생긴다. 이것은 사람이 자리잡는 터전도 아니고, 마땅히 따르는 질서도 아니며, 숨쉴수 있는 대가도 아니다. 하

나님 자신 외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키포레트다. 화해의 장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율법적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신실애 의해서 인간을 위한 구속과 구원이 선포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종교는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행위, 또는 응분의 자격을 갖추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적절한 댓가를 생각하실수 밖에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우리는 별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를 발견하는 곳에서 우리도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의미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하나님의 구속과 용서와 은혜를 기대할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